

민주 권향엽 vs 국힘 이정현...李 선전 여부 전국적 관심

총선 관심지를 가다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난 3일 광양시 중마동 변화가에서는 4·10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 후보 차이가 쉴 새 없이 오가며 후보의 공약 알리기에 집중했다. 봄비가 내려 유권자의 관심이 다소 떨어졌지만, 출마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은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으며 열띤 홍보전을 펼쳤다.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는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중 최대 관심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정현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순천 신대지구·광양 등 도심 지역과 구례·곡성 등 전통 농촌 지역에 합쳐진 도농 복합 선거구로, 유권자 정치 성향이나 지역 현안, 여론 등이 천차만별이다. 실제, 앞선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해 무소속과 보수 후보가 잇따라 당선되기도 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의 지지율이 높았다.

2014년 7월 재·보궐(순천·곡성) 때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전남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이정현·49.43%)에 문을 열어줬던 지역이기도 하다.

4개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광양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2022년(무소속 정현화), 2018년(무소속 정현복), 2014년(무소속 정현복), 2010년(무소속 이상용)까지 무려 4차례나 무소속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농촌지역에 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광양 일대는 타지역 출신도 다수 거주하고 있어 매년 선거 결

권향엽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 이정현 "섬진강 기적 이뤄내겠다" 유현주 "기득권 양당정치 끝내야" 광양 표심이 선거에 절대적 영향

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18세 이상 인구는 곡성(2만 4743명), 구례(2만 2157명), 순천 해룡(4만 5404명)을 합한 인구보다 많아 광양(12만 8764명) 표심이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민주당 권향엽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이날 장남을 맞은 구례 일대와 광양 등지를 돌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권향엽 후보는 "출마 지역구의 새로운 먹거리, 철강에 한정돼 있던 기반 산업을 이차전지, 수소 등으로 다변화시키겠다"며 "농업과 산업의 균형 발전, 관광 자원의 세계화 등을 포함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또 "광양만권 물류 인프라 개선과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며 "여러 정책은 결국 순천·광양·곡성·구례에서 머물고 싶게 만들어 생활 인구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후보는 "최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을 찾아 전남 곳곳을 드나들었다"며 "전남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전남이 아니라 '삶'의 전남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깨우쳤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0년 전 한강의 기적이 오늘날 대한



민주당 권향엽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유현주 후보

민국을 만들었듯이 4년 후 섬진강의 기적이 내일의 전남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부 등 관심과 협력이 이끌어 포스코 광양제철단지, 세풍·해룡·울촌 산단을 대개조하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주 후보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빠졌다"며 "호남정치를 제대로 바꾸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낼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또 "수십년간 한 길을 걸으며 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늘 함께해 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광양에는 신산업을 유치하고 곡성·구례에는 농생명,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총선 현안으로 여야 후보에게 주문했고, 젊은 층은 다소 총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중마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정미영(여·53)씨는 "지역 경기가 나쁘다 보니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 같다, 주변에서 나 보고 빨간 옷도 입지 말

라고 하더라"면서 "현 정부 때문에 빨간색만 봐도 화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주부 안영란(여·61)씨는 "(지역 분위기는) 민주당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사업을 크게 하거나 지역의 유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의 이정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이해연(여·32)씨는 "정치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 투표도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털어

놴다. /4·10 총선 특별취재팀=김해나·서민경·김대수 기자 khn@kwangju.co.kr

“국회 계류 민생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최선”

尹, 민생토론회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내년 2025년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세금 8억1400만원 쓴다

공식 연봉 1억 5690만원
활동비에 사무실 운영비도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699명에 이른다. 평균 경쟁률 2.75대 1. 46석의 비례대표에도 38개 정당인 253명의 후보를 내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리 정치인, 막말 정치인 등으로 투표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1명 당 4년 간 32억 6514만원의 세금을 쓰는 현실을 감안하면 ‘투표하지 않는 권리’는 행사해서는 안되는 권리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해 내놓은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8억 1403만원에 이른다.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 5690만원. 매월 일반수당(707만여원), 관리업무수당(63만여원), 정액급식비(14만원)에다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총액 707만여원), 설·추석의 명절 휴가비(850만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313만여원)와 회기 출석을 기준으로 한 특별활동비(연간 300일 기준 940여만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도 세금으로 지원된다.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 정책자료 발송비 등이 지역 유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최저 9714만~최고 1억 3647만원에 달한다.

보좌진 수당도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4급(연간 9589만원)과 5급(연간 8516만원) 상당 보좌진은 2명씩, 6(연간 6012만원)·7(연간 5193만원)·8(연간 4545만원)·9급(연간 4038만원) 상당 보

좌진은 1명씩 채용해 운영할 수 있다. 이들 9명에게 지급되는 전체 수당은 5억 5999만원이다.

여기에 부가적 혜택도 많다. 예를 들면 의원회관 내 시설인 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등은 공짜다. 이런 특권 조항이 180개가 넘는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원은 “4년 간 1조원 가까운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지역일꾼
김정현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2 변화의 시작
김정현

국회의원 광산구갑 국회의원 후보

농협 355-0088-9042-83
유선 010-4007-3266

108홀 파크골프장 조성 (전국대회유치) ▶ 만 65세이상 모든어르신대상 무료급식 확대지원
▶ 황룡강변 국가정원조성(장록습지 선운지구일대) ▶ 송정역세권 개발(금호타이어이 국가지도이전)